

# 열광... 환호... 당신들 있어 행복했습니다



**날아간 금메달**

남자 쇼트트랙 500m에 출전한 성시백(왼쪽에서 두 번째)이 결승선을 앞에 두고 넘어지고 있다. 오노의 실격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.



**피겨여신의 상처투성이 발**

역대 최고점수로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이룬 '피겨여신' 김연아의 발. 짧은 단화 위로 상처로 얼룩진 김연아의 발목이 보인다.

**여왕의 자태**

2010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'피겨여신' 김연아가 갈라쇼에서 매혹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다. /연합뉴스



**아쉬움의 눈물**

여자 쇼트트랙 1천m 결승에서 중국의 왕멍과 미국의 루터 캐서린에 이어 동메달에 그친 박승희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.



**세리머니도 금메달**

올림픽 신기록으로 스피드스케이팅 1만m 금메달을 차지한 이승훈이 플라워 세리머니 시상대에서 관중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있다.



**상화·연아의 함박웃음**

밴쿠버 팬 퍼시픽 호텔에서 열린 한국 선수단의 밤 행사에서 이상화(왼쪽)와 김연아가 밝게 웃고 있다.



**생일 축하**

스피드스케이팅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로부터 생일케이크를 선물 받은 이상화(가운데)를 위해 모태범(왼쪽)과 이승훈이 축하를 불러주고 있다.

